

우리나라의 소리환경 보전의 의의와 방향

-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Significance and Direction on the Preservation of Sound Environment in Korea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100 Soundscapes of Japan -

한 명 호* 오 양 기**
Han, Myung-Ho Oh, Yang-Ki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sound environment preservation in Korea through the concept of soundscap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it was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contents of 「100 The beautiful sounds of Korea - 1999」 and 「100 Soundscapes of Japan - 1996」 in view of the intents of selection,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results. The result show that there are th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n the intent and the process of selection, types and extent of sound samples, interactions among human-sound environment-region, the identities of the regions as well as the recognized sound environment. Also, the result show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preserve ecological, social, and cultural sound environment of the region. In order to practice this ideology of soundscape in Korea, there is a necessity for converting people's consciousness and participating voluntary residents' movement.

키워드 : 사운드시케이프, 생태학, 소리환경, 소리문화, 주민참여, 환경보전,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Keywords : Soundscape, Ecology, Sound Environment, Sound Culture, Citizen Participation, Environment Preservation, 100 The beautiful sounds of Korea, 100 Soundscapes of Japa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지역의 독자적인 울림이나 활기 또는 조용함이라는 분위기의 청각적 경관요소를 배려하여 지역 본래의 환경과 풍경을 수복, 보전 혹은 계획한다는 사운드시케이프의 개념이 중요한 이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1960년대말 캐나다의 작곡가 쉐이퍼(R. Murray Schafer)⁽¹⁾가 처음 제창하고, 1980년대초 일본의 토리고에(鳥越けい子)⁽²⁾가 일본에 전파한 이 개념은 청각적 경관 또는 소리풍경이라는 소리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하나의 이념으로 전개·발전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1990년대말부터 사운드시케이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이 개념을 도입한 구체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운드시케이프 연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지역이나 도시의 소리

풍경의 정체성(identity)을 찾아내어 독자적인 소리문화를 형성해 가고자 하는 사운드시케이프 본래의 개념과 의의에서 접근한 연구는 드물며, 일부 연구에서는 사운드 디자인(sound design)적 개념의 접근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 그 의미가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1960년대말 북아메리카의 생태학(ecology)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사운드시케이프의 이념과 사상을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적용하고 전개·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올바른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사운드시케이프의 개념과 의의로부터 어떻게 지역과 도시를 가꾸어 나아가고, 어떻게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실천적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리환경보전의 의의와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1990년대 일본 및 한국에서 소리환경의 중요성 및 소리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환경청이 감수한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 1996」⁽³⁾⁽⁴⁾과

* 주저자, 목포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소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oh@mokpo.ac.kr)
이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문화재보존 기술개발연구(R&D)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환경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 1999」^{(5)~(7)}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된 내용은 선정 취지와 기획, 선정방법 및 과정, 그리고 선정결과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사운드스케이프의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검토·고찰하여 사운드스케이프의 의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소리환경을 소리풍경(soundscape)이라는 개념에서 새로이 접근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리환경보전의 의의와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과 의의

2.1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사운드스케이프란 소리(sound)와 조망/경관이란 의미의 접미어 스케이프(scape)와의 복합어으로써, 시각적인 풍경(landscape)에 대해서 귀로 파악하는 풍경, 즉 청각적 경관 또는 소리풍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운드라고 하면 음악처럼 인위적인 소리를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사운드스케이프는 지구규모의 자연계의 소리에서부터 도시의 웅성거림, 인공의 소리에 이르는 우리들을 둘러싼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풍경으로 파악하는 사고를 말한다.^{(8)~(9)} 이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개개의 소리를 각각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조합이 구성하는 소리환경 전체를 하나의 경관 혹은 풍경으로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특정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어떻게 의미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문제로 한다.⁽¹⁰⁾

2.2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의 의의^{(8)~(11)}

1) 음향세계의 확대

소리환경 전체를 풍경으로서 해석하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사고는 종래의 의미에서의 음악의 음, 그 외의 인위적인 소리 뿐 아니라 지구규모의 자연계의 소리에서 인간의 소리, 도구의 소리, 기계의 소리 등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울림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의, 더우기 활기와 조용함이라는 소리환경의 다양한 특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2) 음을 만드는 요소주의에서 탈피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사고는 우선 특정의 소리 혹은 음향현상과 그 가치를 개개의 소리 그 성격과 특성으로만 고찰하였던 이제까지의 소리를 만드는 요소주의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동시에 이것은 이제까지 개별로 검토해 온 소리를 각각의 공간에 있어서 소리환경 전체의 컨텍스트(context)로써, 더욱이 그 공간에 있어서 토탈(total)한 의미로 경관과 문화 전체의 컨텍스트로 되돌리면서, 그들과의 관련속에서 각각의 소리를 파악하고 검토한다는 환경/경관/문화에의 소리의 환원이라는 의의가 있다.

3) 기계론적 환경관에서 의미론적 환경관으로 확대

각종 기계에 의한 계측을 기본으로 하여 소리를 파악하는 종래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환경은 그 안에 사는 주체와는 무관계로 존재하는 주위의 물리적 상황이고, 그것이 주체에 대해서 일종의 자극으로써 작용한다'고 하는 기계론적 환경관에 기본을 둔다. 이것에 반해서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는 '환경은 주체에 따라서 의미지어지고 구성되는 세계이다'고 하는 의미론적 환경관에 속한다.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는 소리를 만드는 환경관 일반을 종래의 기계론적 환경관에서 의미론적 환경관으로 전환 혹은 확대하는 의의를 갖는다.

2.3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개념⁽¹¹⁾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는 우리의 생활과 활동을 만드는 다양한 영역에 관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현대사회에 있어 도시를 만드는 각종 계획론의 영역에서는 그림1과 같이 사운드스케이프 사고가 도입되고 다양한 형태로 배려될 가능성이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란 단순히 사운드 디자인(sound design)이 아니라,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사고에 기초한 다양한 디자인행위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어느 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원할 때, 소리를 직접 디자인의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사운드 디자인의 방법론에서는 새의 지저귀는 소리등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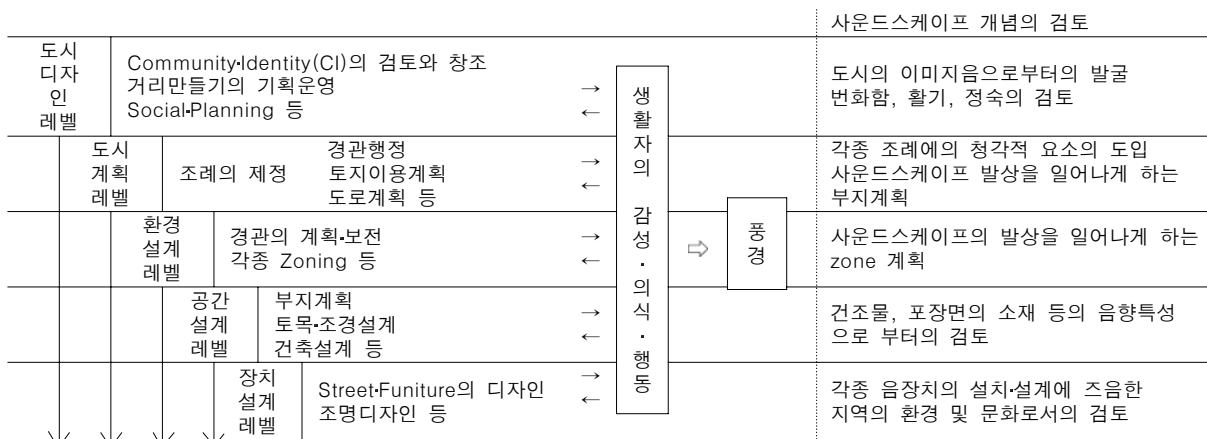


그림 1.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의 디자인 활동 일반에 있어서 위치설정⁽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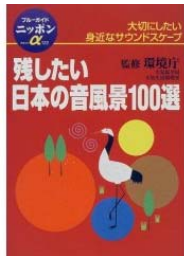
이프를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 보내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것에 반해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고는 가로수를 심는 등, 실제 나뭇잎의 스킴과 거기에 찾아오는 새와 곤충의 울음소리를 듣도록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고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도시계획과 보다 광범위한 환경의 관리·계획의 영역에서 청각적 발상을 받아들이면서,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관점에서 지역 본래의 환경과 풍경을 수복, 보전 혹은 계획하는데 있다. 종래의 사운드 디자인이 소리의 전문가에 의한 소리의 디자인인 것에 반해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소리의 전문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가와 행정담당자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소리풍경이라는 사고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속에서 청각적 사고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란 소리를 만드는 조사연구활동, 교육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구성되는 하나의 학제영역을 나타낸다.

3. 한국과 일본의 소리발굴사업

3.1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 1996⁽³⁾

1) 발굴사업의 취지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방식을 집어넣은 새로운 소리환경 보전대책을 시작하고 싶다는 환경청의 의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역의 심볼(symbol)로써 중요하게 여기고 장래에 남기고 싶은 소리가 들리는 환경(소리풍경)을 널리 공모한 것으로, 그 주목적은 일상생활에서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에 대해 재발견을 촉진하고, 양호한 소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에 뿌리를 둔 노력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소리환경에 관심을 갖고 양호한 소리환경 보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残したい日本の音風景100選

그림 2.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 1996⁽³⁾

2) 발굴사업의 진행 및 선정과정

1995년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응모한 총수는 738건(지방자치체 392건, 기타단체 97건, 개인 249건)이었다. 선정심사 과정에서 소리풍경 검토회(9명의 위원)에서 고려한 점은 소리환경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싶다는 점,



그림 3.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 큐슈⁽³⁾

표 1.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에 나타난 음원종류⁽³⁾

음원종별	응모건수	선정수	
생물	새소리	93	12
	곤충소리	40	7
	개구리소리	23	2
	기타동물	13	2
	식물	29	5
	이들의 복합	10	3
소계	208	31	
자연현상	강, 폭포소리	93	10
	파도등 바다소리	41	9
	기타 자연현상	21	0
	이들의 복합	9	0
소계	164	19	
생활문화	축제등 행사 소리	69	9
	종 등 신호 소리	65	10
	산업·교통 소리	74	11
	기타 생활문화	73	6
	이들의 복합	10	1
소계	291	37	
이상의 복합음	52	12	
그 외(정수합, 분류곤란)	23	1	
합 계	738	100	

일본의 소리풍경의 다양성을 반영시키고 싶다는 점, 각 지역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적 균형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3) 선정결과의 구성

홋카이도·토호쿠(北海道·東北), 칸토·코신에쓰(關東·甲信越), 추부·호쿠리쿠(中部·北陸), 칸사이·큐슈(關西, 九州), 추코쿠·시코쿠(中國·四國) 등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소리풍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주제별로 나눈 선정기준은 생물의 소리, 생물이외 자연현상의 소리, 생활문화에 얽혀있는 소리 등이다.

3.2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 1999⁽⁵⁾

1) 발굴사업의 취지

환경부에서는 1999년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과 자연을 벗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선정·보급사업을 기획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자연환경이 가지는 의미와 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삶의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후세에 환경보전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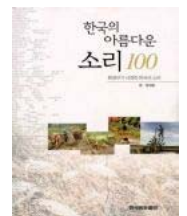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⁵⁾

2) 발굴사업의 진행 및 선정과정

1999년에 공모를 거쳐 국민으로부터 400여 가지의 후보소리¹⁾를 접수받아, 소리·영상 전문가와 함께 자연환경

표 2.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 풍경 100선⁽³⁾

연번	지역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 풍경	연번	지역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 풍경
1	北海道 (5)	오오츠크헤의 흐르는 빙하	51	中部	나가라강의 가마우지 고기잡이
2		삿포로시 시계탑의 종	52	北陸 (6)	쇼묘폭포
3		하코다테 하리스트스 정교회의 종	53		엔나카의 물소리와 오와라 풍습
4		다이세츠산 아사히다케 산의 생물	54		이나미의 목각 소리
5		츠루이의 두루미 성역	55		혼다의 숲의 매미
		56	테라마치 사원군의 종		
		57	미노와키의 시각알리는 물		
6	東北 (18)	하치노헤항 · 카부섬의 갈매기	58	關西 (12)	미이의 만종
7		오가와라 호반의 들새	59		히코네성의 시보종과 벌레소리
8		오이라세의 시냇물	60		교토의 대나무숲
9		네부타 축제	61		루리(교토)계곡
10		바둑돌 해안 · 퇴암(雷岩)	62		고토히키 해안의 우는 모래
11		미즈사와역의 남부풍령	63		요도가와 하천부지의 술귀뚜라미
12		차구차구 말의 방울소리(축제)	64		조코절 경내의 가와치 춤
13		미야기노의 방울벌레	65		타루미항의 까나리 고기잡이
14		히로세강의 기생개구리와 들새	66		나다의 싸움축제의 큰북
15		기타카미강 하구의 갈대	67		카스가노의 사슴과 시요절의 종
16		이즈누마 · 우치누마의 거리기	68		후도산 거석에서 들려오는 소리
17		바람의 송풍톱	69		나체의 폭포
18		산사의 매미			
19		소나무 불교행진의 소라고등	70	中國 (9)	물새공원의 철새
20		모가미강 하구의 백조	71		미토쿠강 시냇물과 기생개구리
21		후쿠시마시 작은새의 숲	72		인슈 일본종이의 종이만들기
22		오오우치 속소의 자연 용수	73		고토가하마 해안의 우는 모래
23		모시 베짜는 소리	74		스와동굴 · 빗추강 시냇물, 물레방아
		75	신조속소의 실개천		
		76	히로시마의 평화의 종		
		77	센코절 경음투의 종		
		78	야마구치현의 SL		
24	關東 (14)	이즈라 해안의 파도소리	79	四國 (6)	나루토의 소용돌이 치는 파도
25		태평산 수곡비탈의 청개구리	80		아와오도리의 축제
26		수금정의 수금골	81		오오쿠보절의 종과 렌토씨의 방울
27		카와고에의 시계종	82		만노연못과 시냇물
28		아라카와 · 오시키리의 벌레소리	83		도고온천 진로각의 큰북
29		토요하시의 낙수	84		무로토곶 · 미쿠인굴의 파도
30		마넨바라의 애봄매미	85	九州 (14)	하카다기온 축제의 산도롱
31		시바타타다이샤쿠덴일대와 나루터	86		칸제온천의 종
32		우에노의 산의 시계종	87		칸몬해협의 파도소리와 기적
33		삼포사 연못의 새, 물, 나무 소리	88		카라즈 히끼산 바야시 축제
34		세이케이학원 느티나무 가로수	89		이마리의 도자기 굽는 소리
35		요코하마항 신년맞이 배의 기적	90		산노신사 폭격맞은 녹나무
36		가와사키 대사의 참배길	91		쓰츨다리의 방수
37		도호가와공원 시냇물과 들새소리	92		이즈와의 바다 돌고래
38	甲信越 (6)	후지산기슭 · 사이코항 들새의 숲	93	온다사라 산의 디딜방아	
39		젠코우절의 종	94	오카성의 솔바람	
40		엔레이의 작은새의 지저귐	95	산노미야 칼짜기 망루의 굉음	
41		야시마 다습초원의 개구리울음	96	네비노고원의 야생사슴	
42		후쿠시마가타의 큰거리기	97	이즈미의 두루미	
43		오야마의 애봄매미	98	찌가미강의 흐르는 물과 순환철도	
44	中部 (8)	엔슈나다의바닷소리 · 물결소승	99	沖繩 (2)	시이라강 주변 아열대숲의 생물
45		오오이강 철도의 SL	100		에이사 축제
46					
47					
48					
49					
50					

표 3.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의 분류⁽⁶⁾

연번	구분	선정수	비고
1	사계	21	「디지털로 여는 소리의 4계」(2001년 6월, KBS 환경스페셜 방송)에서는 자연과 생명의 소리, 고향의 소리, 삶의 현장의 소리로 분류하여 방영하였다. ⁽⁶⁾
2	향토	28	
3	울림	8	
4	추억	14	
5	생명	29	
	합계	100	

의 소리, 생물체의 소리 등 아름다운 소리 100가지를 선정²⁾하였고, 2000년에는 선정된 100가지 소리에 대해 계절

1) 1999년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기간중 16개 시·도의 각 자치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응모·신청된 380건의 소리와 민간전문가가 추천한 37건의 소리이다.
2) 아름다운 소리 100선 후보소리 선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아름다운 소리 100선' 실무위원회 및 선정위원회(9명)를 통하



그림 5.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촬영 및 소리 채록지⁽⁵⁾

별로 강원도 정선, 부산, 순천,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100가지 소리의 원음과 영상을 녹취하였다.

3) 선정결과의 구성과 내용

1년여의 노력끝에 녹취한 100가지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소중한 소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며 사계, 향토, 울림, 추억, 생명 등의 5장으로 구성하였다.

4. 소리발굴사업의 유사성과 차이점

4.1 사업의 취지 및 선정과정

한국과 일본의 소리발굴사업은 모두 소리환경보전을 취지로 하여 후손을 위한 소리환경의 보전과 축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취지를 갖는다. 또한, 소리발굴사업의 응모기간이 한국과 일본 모두 약 3개월 정도³⁾로, 응모총수가 각각 한국 417건(자치단체와 개인 380건, 민간전문가 37건), 일본 738건(지방자치단체 392건, 기타단체 97건, 개인 249건)으로 두 나라의 인구규모와 면적대비로 볼때 그 차이를 살펴보기 어렵다. 다만, 각 지역에서 추천된 소리의 행정적 위치와 잘 들리는 시기와 장소 등이 정해진 후 추천·선정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소리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천·선정한 후 소리의 녹취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정과정상 지역적 특성이 배려되지 못했다는 점⁴⁾에서 그 차이를 보여준다.

여 101건의 후보소리를 선정하였다.

3) 공모기간은 한국이 1999년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00일이며, 일본이 1996년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80일이다.

표 4.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⁵⁾

연번	주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연번	주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	사계 (21)	고드름 낙수소리	51	울림 (8)	보신각 종소리
2		얼음장밀우리로 물흐르는 소리	52		가을바람에 풍경우는 소리
3		동굴낙수소리	53		범고소리
4		여름폭포소리	54		목어소리
5		몽돌과도에 휩쓸리는 소리	55		운판소리
6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56		범종소리
7		천둥소리	57		성당종소리
8		장마 비바람소리	58		추억 (14)
9		우박 떨어지는 소리	59	풍금소리	
10		가시연꽃밭의 폭우소리	60	아이들 전통놀이 소리	
11		불어난 계곡물 쏟아져내리는 소리	61	가을운동회 소리	
12		벼이삭 부딪히는 소리	62	대장간소리	
13		낙엽지는 소리	63	참숯 익는 소리	
14		싸리비로 낙엽쓰는 소리	64	노젓는 소리	
15		낙엽밟는 소리	65	개울가 빨래소리	
16		바람에 낙엽구르는 소리	66	염전수차 소리	
17		역새 부딪히는 소리	67	통방아소리	
18		갈대 부딪히는 소리	68	물레방아소리	
19		눈보라소리	69	디딜방아소리	
20		설피신고 눈밟는 소리	70	다듬이질소리	
21		겨울얼음장 깨지는 소리	71	마지막 비둘기호 정선선 기적소리	
22	향토 (28)	할아버지 잔기침소리	72	생명 (29)	팽이갈매기 우는 소리
23		달집 태우는 소리	73		가창오리 군부소리
24		논두렁 태우는 소리	74		둥지떠난 새끼제비들의 소리
25		소울음소리	75		딱따구리 나무 구멍파는 소리
26		가마솥 끓는 소리	76		보리밭 종달새 우는 소리
27		소여물 먹는 소리	77		백로 새끼키우는 소리
28		우시장 소울음소리	78		소쩍새 우는 소리
29		모내기하는 소리	79		둥지떠난 피꼬리새끼 어미찾는 소리
30		밭가는 소리	80		삼광조 새끼키우는 소리
31		장닭우는 소리	81		큰유리새 새끼키우는 소리
32		산나물 캐는 소리	82		붉은배새매 새끼키우는 소리
33		베를짜는 소리	83		파랑새 새끼키우는 소리
34		시골장터 소리	84		겨울들관 두루미 구매하는 소리
35		죽타기로 벼터는 소리	85		참매미 짹짹소리
36		탈곡기로 탈곡하는 소리	86		쓰듬매미 우는소리
37		키질하는 소리	87		애매미 짹짹소리
38		콩도리개질소리	88		왕쇠똥구리 경단 굴리는 소리
39		콩깍지 타는 소리	89		토종별 일하는 소리
40		멧돌가는 소리	90		귀뚜라미 짹짹 소리
41		절구짵는 소리	91		여치우는 소리
42		떡치는 소리	92		방울벌레 노래소리
43		어서장 경매소리	93		베짱이우는 소리
44		오징어 물뿜는 소리	94		긴꼬리우는 소리
45		송어잡이 소리	95		누에 뿔갈아먹는 소리
46		재첩캐는 소리	96		개구리 울음소리
47		꼬막잡는 소리	97		두꺼비우는 소리
48		해녀숨비 소리	98		맹꽁이 울음소리
49		연평도 풍어제 소리	99		섬진강 동자개 우는 소리
50	울림	100	남대천 연어돌아오는 소리		

성을 갖는 소리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며⁵⁾, 특히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표출하는 축제의 소리가 포함⁶⁾되어 있는 것은 두드러진 차이로 볼 수 있다.

4.3 인간-소리(환경)-지역의 상호작용

인간과 소리(환경) 및 지역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의 대부분의 축제행사에 관련된 소리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를들면 에이사 축제(100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에이사는 음력 8월 15일에 선조의 공양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행렬을 만들어 북(파란크)과 샤미센으로 에이사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짐들을 도는 오키나와(沖繩)의 전통행사로써, 노래나 춤은 지구에 따라서 달라 각각의 지구에서 소중히 계승되고 있다.’⁷⁾ 이러한 축제가 갖는 의미는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이루어지는 축제라는 소리환경과 지역, 그리고 주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풍경으로써 이 점도 한가지 차이점으로 인식된다.



그림 6. 오키나와(沖繩)의 에이사 축제⁸⁾

4.2 소리의 종류와 다양성

자연, 역사, 전통 및 문화적 특성을 기조로 하는 소리 풍경이라는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의 유무에 따라서 소리의 종류와 다양성에서 차이가 보여진다. 소리의 순서와 종류를 주제에 따라서 분류(표4 참조)한 한국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사계/생명)와 우리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소리(향토/울림/추억)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지역에 따라 분류한 일본의 소리(표2 참조)도 자연의 소리와 생활환경과 관련된 종류의 소리가 많지만, 그중에는 지역특

4.4 지역의 정체성(identity)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의 선정심사 과정에서 고려한 점중의 하나인 소리환경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싶다는 점, 소리분류의 방법상 지역을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리의 다양성을 배려한

4) 연평도 풍어제소리(49), 에밀레 종소리(50), 보신각 종소리(51), 남대천 연어돌아오는 소리(100)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리, 예를들면 고드름 낙수소리(1), 여름 폭포소리(4), 할아버지 잔기침소리(22), 밭가는 소리(30), 개구리 울음소리(96)...등의 소리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예를들면, 오오츠크해의 호르는 빙하(1), 츠루이의 두루미 성역(5), 후지산기슭·사이코항 들새의 숲(38)...등 그 지역의 특징적 소리와 그 소리가 들리는 영역 등에서 소리의 종류와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6) 네부터 축제(9), 차구차구 말의 방울소리(12), 나다의 싸움축제의 큰북(66), 아와오도리의 축제(80), 하카다기온 축제의 산도롱(85), 카라쓰 히끼산 마야시 축제(88), 에이사 축제(100) 등 지역의 전통적 행사를 포함한 축제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7)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일람에 각 소리풍경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의 소리가 선정과정에서 뿐아니라 지역의 소리문화의 특성을 배려하는 지역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4.5 소리환경문제의 인식

앞서 언급한 한국과 일본의 응모기간과 응모총수에서 국민들의 소리환경문제의 인식에 대한 차이는 살펴보기 어렵지만, 소리의 응모가 지역의 자치단체와 개인이 지역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소리를 추천·응모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배려한 선정과정 및 지역적 배려, 그리고 선정결과 지역의 소리의 다양성을 배려하였다는 점에서, 소리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소리발굴사업의 추진계획상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의 활용은 ‘지역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친환경적 상품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중 ‘소음발생제품(가정집 벨, 시계의 알람, 휴대폰 소리) 등을 친환경상품으로 개발 유도한다.’⁽⁷⁾는 계획이 담겨있다. 반면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검토회에서는 ‘좋은 소리라 하여 거리에서 녹음테이프 등으로 흘려 보내는 것은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소리풍경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게 주변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⁴⁾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발굴사업의 결과, 소리의 활용성과 소리환경의 배려 및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개념적 의미에 있어서 뚜렷한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다.

5. 소리환경 보전의 의의와 방향

5.1 생태적 측면의 소리환경보전

‘인간과 자연(동식물)이 어울어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은 현재 국내의 생태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국가적 상황과 잘 대응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성립의 배경이 된 것은 1960년대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자연파괴를 둘러싼 사회문제, 환경일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소위 생태학(ecology)운동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사조가 사운드스케이프 사상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⁸⁾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또는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이 그 나라 또는 지역의 소리환경을 보존하고 국민들의 환경적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교육적 전략(educational strategy)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의 사계 및 생명의 소리(표5 참조), 「디지털로 여는 소리의 사계」의 자연과 생명의 소리,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의 생물 및 자연현상의 소리(표8 참조)가 여기에 해당된



그림 7. 생태적 측면의 소리풍경

표 5.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 사계/생명⁽⁵⁾

연번	사계 (21종)	연번	생명 (29종)
1	고드름낙수소리	75	딱따구리나무구멍파는소리
2	얼음장밀으로 물흐르는소리	76	보리밭종달새우는소리
3	동굴낙수소리	77	백로새끼키우는소리
4	여름폭포소리	78	소쩍새우는소리
5	몽돌파도에 휩쓸리는소리	79	등지떠난피꼬리새끼어미찾는소리
6	대나무부딪히는소리	80	삼광조새끼키우는소리
7	천둥소리	81	큰유리새새끼키우는소리
8	장마비바람소리	82	붉은배새매새끼키우는소리
9	우박떨어지는소리	83	파랑새새끼키우는소리
10	가시연꽃밭의폭우소리	84	겨울들관두루미구애하는소리
11	불어난계곡물쏟아져내리는소리	85	참매미짹짹소리
12	벼이삭부딪히는소리	86	쓰름매미우는소리
13	낙엽지는소리	87	애매미짹짹소리
14	짜리비로낙엽쓰는소리	88	왕쇠똥구리경단굴리는소리
15	낙엽밟는소리	89	토종벌일하는소리
16	바람에낙엽구르는소리	90	귀뚜라미짹짹소리
17	역새부딪히는소리	91	여치우는소리
18	갈대부딪히는소리	92	방울벌레노래소리
19	눈보라소리	93	베짱이우는소리
20	설피신고눈밟는소리	94	긴꼬리우는소리
21	겨울얼음장깨지는소리	95	누에뽕잎갈아먹는소리
연번	생명 (29종)	96	개구리울음소리
72	괭이갈매기우는소리	97	두꺼비우는소리
73	가창오리군무소리	98	맹꽁이울음소리
74	등지떠난새끼제비들의소리	99	섬진강동자개우는소리
		100	남대천연어돌아오는소리

표 6.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 생물/자연현상⁽³⁾

연번	생물 (31종)	연번	생물 (31종)
4	다이세츠산 아사히다케 산의 생물	70	물새공원의 철새
5	츠루이의 두루미 성역	92	이즈와의 바다 돌고래
6	하치노해항·카부섬의 갈매기	94	오카성의 솔바람
7	오가와라 호반의 들새	97	이즈미의 두루미
13	미야기노의 방울벌레	99	시아라강 주변 아열대숲의 생물
14	히로세강의 기생개구리와 들새	연번	자연현상 (19종)
15	기타카미강 하구의 갈대	1	오오츠크헤의 흐르는 빙하
16	이즈누마·우치누마의 기러기	8	오이라세의 시냇물
17	바람의 송풍톱	10	바둑돌 해안·뢰암(雷岩)
18	산사의 매미	22	오오우치 숙소의 자연 용수
20	모가미강 하구의 백조	24	이즈라 해안의 파도소리
21	후쿠시마시 작은새의 숲	29	토요하시의 낙수
25	태평산 수국비탈의 청개구리	47	이라고미사키 연애바다의 파도
28	아라카와·오시키리의 별레소리	52	쇼묘폭포
30	마네파라의 애봄매미	57	미토와키의 시각알리는 물
34	세이케이하원 느티나무 가로수	61	루리(교토)계곡
38	후지산기슭·사이코항 들새의 숲	62	고토히키 해안의 우는 모래
40	엔레이의 작은새의 지저귐	69	나찌의 폭포
41	야시마 다습초원의 개구리울음	73	미도가하마 해안의 우는 모래
42	후쿠시마가타의 큰기러기	75	신쥬숙소의 실개천
43	오야마의 애봄매미	79	나루토의 소용돌이 치는 파도
44	엔슈나다의바닷소리·물결소송	84	무로토곶·미쿠인굴의 파도
46	히가시야마 식물원의 들새	91	쓰츄다리의 방수
55	혼다의 숲의 매미	95	산노미야 골짜기 땅우의 핑음
60	교도의 대나무숲	96	데비노고원의 야생사슴
63	요도가와 하천부지의 솔귀뚜라미		

다. 이러한 지역의 생태적 소리환경의 보전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리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지역의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하겠다.

5.2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소리 환경보전

사운드스케이프의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community) 의식과 관련을 갖는 소리으로써 마을이나 지역에 있어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소리풍경의 문화적 특성은 그 기반이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대신에, 그 지역의 신화적, 상징적 성격의 소리으로써 표식음(soundmarks)의 가치를 갖는 소리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들면,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판소리나 축제의 소리는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이 담겨있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내포하면서, 독특한 한국의 전통적 소리문화로 계승·발전됨에 따라서 한국의 소리문화의 정체성을 갖는 문화적 가치의 소리풍경을 형성하고 있다.⁽¹²⁾

그 나라 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 또는 지역만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깨닫고 알게 된다. 소리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은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이 갖는 중요한 의의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의 향토, 울림 및 추억의 소리(표7 참조), 「디지털로 여는 소리의 사계」의 고향과 삶의 현장의 소리,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의 생활문화의 소리(표8 참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기조로 한 사회적·문화적 소리환경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 나라 또는 지역의 소리문화의 정체성(identity)을 발굴하거나 회복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5.3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운동 전개

일본은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독자적인 소리풍경과 관련된 소리공모 또는 소리명소를 모집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림10 참조), 지역의 독자적인 소리풍경을 발굴하고 보전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의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은 전국에서 이러한 실천운동을 통해서 모집된 소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국가적 소리발굴사업의 다양한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사업은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공모·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표 7.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 향토/울림/추억⁽⁵⁾

연번	향토 (28종)	연번	향토 (28종)
22	할아버지잔기침소리	49	연평도풍어제소리
23	달집태우는소리	연번	울림 (8종)
24	논두렁태우는소리		
25	소울음소리		
26	가마솥끓는소리		
27	소여물먹는소리		
28	우시장소울음소리		
29	모내기하는소리		
30	밭가는소리		
31	장담우는소리		
32	산나물캐는소리		
33	배틀짜는소리	연번	추억 (14종)
34	시골장터소리		
35	족타기로벼터는소리		
36	탈곡기로탈곡하는소리		
37	키질하는소리		
38	콩도리깨질소리		
39	콩깍지타는소리		
40	멧돌가는소리		
41	절구쪼는소리		
42	떡치는소리		
43	어서장정매소리	58	학교종소리
44	오징어물뿜는소리	59	풍금소리
45	송어잡이소리	60	아이들전통놀이소리
46	재첩캐는소리	61	가을운동회소리
47	포막잡는소리	62	대장간소리
48	해녀숨비소리	63	참숯익는소리
		64	노젓는소리
		65	개울가빨래소리
		66	엄전수차소리
		67	통방아소리
		68	물레방아소리
		69	디딜방아소리
		70	다듬이질소리
		71	마지막비둘기호정선전기적소리

표 8.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 - 생활문화/복합음⁽³⁾

연번	생활문화 (37종)	연번	생활문화 (37종)
2	삿포로시 시계탑의 종	78	야마구치선의 SL
3	하코다테 하리스투스 정교회의 종	80	아와오도리의 축제
9	네부타 축제	81	오오쿠보질의 종과 헨로씨의 방울
11	미즈사와역의 남부풍령	83	도고온천 진로각의 큰북
12	차구차구 말의 방울소리(축제)	85	하카다기온 축제의 산도롱
19	소나무 불교행진의 소라고동	86	칸제온절의 종
23	모시 베짜는 소리	88	카라즈 히기산 바야시 축제
26	수금정의 수금굴	89	이마리의 도자기 굽는 소리
27	카와고에의 시계종	93	온다사라 산의 디딜방아
32	우에노의 산의 시계종	100	에이사 축제
35	요코하마항 신년맞이 배의 기적	연번	복합음 (12종)
36	가와사키 대사의 참배길		
39	젠코우절의 종		
45	오오이강 철도의 SL		
48	이세시마 해녀의 피리		
49	우다즈 마을의 수금굴		
50	요시다강의 물놀이		
51	나가라강의 가마우지 고기잡이		
54	이나미의 목각 소리		
56	테라마치 사원군의 종		
58	미이의 만종	31	시바타타이샤쿠덴일대와 나루터
64	조코절 경내의 가와치 춤	33	삼포사 연못의 새, 물, 나무 소리
65	타루미항의 까나리 고기잡이	37	도호가와공원 시냇물과 들새소리
66	나다의 싸움축제의 큰북	53	엔나카의 물소리와 오와라 풍습
72	인슈 일본종이의 종이만들기	59	히코네성의 시보종과 벌레소리
76	히로시마의 평화의 종	67	카스가노의 사슴과 시요절의 종
77	센코절 경음루의 종	71	미토구강 시냇물과 기생개구리
		74	스와동굴·빗추강 시냇물,물레방아
		82	만노연못과 시냇물
		87	칸몬해협의 파도소리와 기적
		90	산노신사 폭격맞은 녹나무
		98	찌가미강의 흐르는 물과 순환철도
		연번	기타 (1종)



그림 8. 사회적 측면의 소리풍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의 공모취지가



그림 9. 문화적 측면의 소리풍경

모두 지역의 자연, 역사와 전통을 기조로 한 소리문화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교육적 전략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들의 마을 또는 지역의 소리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의식과 자세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소리환경을 배려한 마을가꾸기 운동으로 전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위로 부터의 계획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 또는 지역의 소리풍경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써, 주민참여에 의한 자발적인 소리풍경 만들기로 전개시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10. 일본의 소리명소 모집 팸플릿²⁾

6. 결론

이 연구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는 소리풍경의 개념을 통해서 소리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리나라의 소리환경보전의 의의와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과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의 사업취지,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 구성 등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소리발굴사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소리환경보전의 대책과 방향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소리발굴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선정과정, 소리의 종류와 다양성, 인간-소리(환경)-지역의 상호작용, 지역의 정체성(identity), 소리환경문제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에서 보는 소리환경의 보전은 그 지역의

자연, 역사, 전통 및 문화를 기조로 하는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소리환경 보전이 우리의 환경보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으며, 특히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자연, 역사, 전통 및 문화를 기조로 하는 지역의 소리발굴 및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과 「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이라는 소리발굴사업의 제목 자체에서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는 사고방식의 배려 유무가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적 측면에서 소리환경보전의 대책과 방향성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소리풍경의 개념과 의의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소리환경보전의 대책에 대한 비교우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리환경보전의 대책과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그 목표를 명확히하고 소리환경보전의 문제를 국민적 의식으로 통합하여 실천적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머레이 웨이퍼 지음, 한명호, 오양기 옮김(2008), 사운드스케이프 : 세계의 조율, 도서출판 그물코.
2.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스케이프 : 그 사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3. 環境廳 監修(1997), 残したい日本の音風景100選, 實業之日本社.
4. 日本音風景検討會(1996), 残したい“日本の音風景100選”の選定にあたって, 公開資料.
5. 장해량(2002),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 한국방송출판.
6. KBS다큐멘터리 환경스페셜(2001), 디지털로 여는 소리의 세계, KBS미디어.
7. 환경부 생활공해과(1999), 아름다운 소리 100선 추진계획, 공개자료.
8. 鳥越けい子(1990), サウンドスケープとはなにか, 環境技術, Vol.19, No.7, pp.1~3.
9. 鳥越けい子(1987), サウンドスケープ研究の問題と展望 -神田地区におけるケーススタディーを通して-, 騒音制御, Vol.11, No.3, pp.141~146.
10. 鳥越けい子(1991), サウンドスケープの考え方とその現代社会における意義, 日本機械學會環境工學總合シンポジウム '91講演論文集, pp.495~498.
11. 鳥越けい子(1990), 思想としてのサウンドスケープ デザイン, 騒音制御, Vol.19, No.7, pp.425~430.
12. 한명호, 오양기(2007), 지역의 소리문화로서 소리풍경의 가치와 실천방향, 한국음향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95~98.
13. 한명호, 오양기(2007),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에서 본 소리환경보전의 의의와 방향, 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21~226.
14. 한명호, 오양기(2008),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운동의 전개를 위한 실천 전략, 한국건축환경설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10~113.

투고(접수)일자: 2008년 4월 28일

심사일자: 2008년 4월 30일

게재 확정일자: 2008년 6월 2일